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2019. 5. 27 ~ 2019 6. 1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남유럽 국가인 스페인의 사회보장 관련 특성을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관리 현황 및 대응 제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관리 방식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부정수급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남유럽 국가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대응에 대한 고찰을 통한 한국에 대한 정책함의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출장기간 : 2019. 5. 27 ~ 6. 1 (4박 6일)

□ 출장지역 : 스페인 카탈루냐(바르셀로나)

□ 출 장 자 : 임완섭 부연구위원

□ 일정 및 활동사항

일시	행선지	방문기관/면담자	활동내역
2019. 5.27(월)	인천-바르셀로나	이동 및 바르셀로나 도착	
2019. 5.28(화)	스페인/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대학 /신봉하	-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개관과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관리 현황
		바르셀로나대학/ CIO PATXOT	- 기여식 및 비기여식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관리 및 부정수급 관리 현황
2019. 5.29(수)	스페인/바르셀로나	국립사회보험청/ Rafael Larana Cobo	- 노인의 소득보장 관련 스페인의 연금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스페인/바르셀로나	카탈루냐주정부 노동가족부/Julia Pueyo Fernandez 외	-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관리체계 파악
2019. 5.30(목)	스페인/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시의회/ Bru Lain	- 바르셀로나시의 B-MINCOME project (기본소득 프로젝트) 와 사각지대
2019. 5.31(금)	스페인/바르셀로나	카탈루냐공과대학/ 진광선	- 카탈루냐지방의 사각지대 대응방안(주거 및 도시빈곤 관련)
	바르셀로나-인천	이동	
2019. 6. 1(토)	인천	도착	

2. 세부 내용

가. 카탈루냐 주정부의 사각지대 해소 관련 프로젝트

■ 주거권리보장 계획 : 주거공간 상실 방지 및 주거 유지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 주거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¹⁾

-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적은 수입을 가진 가족 혹은 공동 거주 단위에 대한 보조금 지원.
- 2018년 주거 임대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경제적 지원. 올해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수요에 따라 65,281 가구에 대해 총 금액 1억2260만 유로 지원.

□ 특별 비상 주택 경제적 원조²⁾: 주택 분야의 비상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긴급 경제 원조

- 가족 혹은 개인의 영구거주 혹은 일반거주를 위한 주택의 상실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
- 대상 : 카탈루냐 거주민이며, 공동 거주 단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채권 미납 (임대 소득, 대출 수수료), 퇴거 명령 혹은 주택 처분 등의 결과로 인하여 주거 공간 상실을 통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있는 사람
- 책임 기관 : 카탈루냐 주정부 토지 및 지속가능성 부서(Departament de Territori i Sostenibilitat), 카탈루냐 주택청(Agència de l'Habitatge de Catalunya)

■ 에너지 빈곤층 기초 공급 보장³⁾

□ 전기, 가스 및 수도 요금에 대한 미납으로 인해 사용자가 주택 상실의 위기에 처한 경우 에너지 공급 회사는 에너지 공급을 단절할 수 없음.

-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 회사에 대한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주택 상실을 통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보호, 에너지 기초 공급 단절 예방 및 미불 채납금 관리를 위한 보조금 또는 할인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
- 2013년 에너지 빈곤층 조사에 따르면 카탈루냐에는 193,000 가구 (총6.9%)가 주택을

1) https://web.gencat.cat/ca/actualitat/detall/20190415_Ajuts-al-pagament-del-lloguer-en-cas-de-risc-d'exclusio-social

2) <https://web.gencat.cat/es/tramits/tramits-temes/Prestacions-economiques-despecial-urgencia-per-a-l'habitatge>

3) (<http://web.gencat.cat/ca/tramits/que-cal-fer-si/Pobresa-energetica/>)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경비를 수납 기간에 수납하지 못했음.

- 2008년도에 비해 전기세 60% 인상, 수도세 66% 인상 등 기본요금의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대상: 카탈루냐 소득수준 지표(IRSC: Indicador de Renta de Suficiencia de Catalunya)
에 따라 소득이 다음보다 낮은 경우

- 혼자 거주할 경우 : IRSC 의 2배
- 두 명 이상 공동 거주할 경우 : IRSC 의 2.5배
- 장애인 혹은 의존이 필요한 경우 : IRSC 의 3배
- 예외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만 주택 상실의 위험에 처한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가족 혹은 개인이 주택 상실 위험의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요청

○ 대표적 프로그램 : 사회적 수도 세금(canon social del agua)⁴⁾

- ‘사회적 수도 세금’ 은 수도세 환부를 통해 수도에 대한 이용비용을 하락시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수도물의 수요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임.
- 사회적 수도 세금이 적용된 첫 번째 분기의 수도세는 일반 수도세의 50% 이상 절감된 0.24유로/ m^3 이며, 이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결정되어짐.
- 신청인의 거주지로 등록된 주택의 수도세에 적용이 되며, 적용의 범위는 첫 번째 분기의 사회적 수도세 적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 첫 번째 분기의 사회적 수도세의 적용 범위는 거주인의 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됨.
- 사회적 수도세를 적용받는 사람의 수도세가 첫 번째 분기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세금고지서에 사회적 수도세의 두 번째 분기가 표시되는 경우) 이 고지서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도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그러나 그 이후 정해진 수도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수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적용 대상은, 구성원 모두가 실업 상태인 가족, 최소 연금을 받는 사람들, 특별 보호 집단 등, 관할 지역 행정부의 사회 복지 기관을 통해 경제적 취약성 혹은 거주지 상실의 위험에 놓인 개인 혹은 가구임.

○ 책임 기관 : 카탈루냐 주정부 토지 및 지속가능성 부서(Departament de Territori i Sostenibilitat), 카탈루냐 수도청 (Agència Catalana de l'Aigua)

4) <http://web.gencat.cat/es/tramits/tramits-temes/Canon-social-de-laigua-00001?category=75b0b894-a82c-11e3-a972-000c29052e2c>

■ 은퇴자 비기여 연금(Pensió no contributiva per jubilació)⁵⁾

- 연금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정기적인 성격의 개별 경제적 지원으로, 2019년 기준으로 최소 98유로 최대 392유로를 연간 14회에 걸쳐 지원

나. 바르셀로나 시 주관 사각지대 해소 관련 프로젝트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 APROP⁶⁾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역 주민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제공 (5년)
 - 보호 주택 신청자이며, 긴급하게 거주지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착공이 예정된 공지에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임시 건물을 건설하여 임시 거주지를 제공.
 - 일부 임시 주택에는 지역 사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시설이 포함될 예정.
 - 일반적으로 새로운 공공 주택을 짓고 그 건물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6~7년 정도가 걸리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 기간을 9개월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공공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해결책이 제공됨.
 - 이 주택 프로젝트는 이미 코펜하겐, 벤쿠버, 암스테르담, 런던 등 다른 국가의 도시들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임.
 - 현황 : 2018년부터 프로젝트가 실제로 구현되었으며,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는 예산 530만 유로로 92개의 거주지를 건설하여 250명의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제공
 - 이 프로젝트는 차후 도시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나, 우선적으로 씨우닷 베야 지역(고딕 지구), 산츠-몬주익 지역(라 보르데파), 산 마르티 지역(글로리에스)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될 예정임.

□ BPO (Bajos de proteccion oficial)

-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거대 부동산 회사가 비어 있는 건물을 사들이기 전에 건물

5) <http://web.gencat.cat/ca/tramits/tramits-temes/Pensio-no-contributiva-per-jubilacio-00002>

6) https://ajuntament.barcelona.cat/dretssocials/es/noticia/alojamientos-de-proximidad-provisionales-para-luchar-contra-la-gentrificacio_614902

의 저층부를 시에서 공식적으로 보호하여 이웃 주민들을 위한 지역 상거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임.

- ‘Pla de Barri’ 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계획이며, BPO는 ‘Pla de Barri’의 일환으로 바르셀로나 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씨우닷 베야의 라발 지구 남쪽, 고딕 지구 남쪽지역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임
- 도시조직의 다양성과 바람직한 지역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BPO 프로그램은 시유 건물의 유허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바르셀로나 시에서는 이 프로그램 실행에 앞서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유허 건물 지상층을 시 소유 건물로 구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체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를 보호할 계획임.

■ 도시계획 관련 빈곤층 관련

□ Pla de Barris⁷⁾(Ciutat Vella) :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개발 계획

- ‘Pla de Barris’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개발 계획으로, 특별 예산안을 배분하여 개발이 더욱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임.
- 이 계획은 기존에 도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지역 사회 강화, 성에 대한 관점, 공중 보건, 공정성을 목적으로 함.
- 이 계획은 도시 환경, 경제 활동, 시민 권리, 교육 등 네 분야에 대한 계획으로 구성되며,
 - 저소득층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사회적 경제, 지역 상거래 및 지역 산업 생산 능력 회복 및 고용 가능성 개선에 중점을 둔 경제 활동, 부족한 공공 공간·시설 확충, 양질의 위생적인 주택 단지 확충, 평등한 교육 기회, 신체 및 정신 건강, 보호가 필요한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계획의 특징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강화

□ Housing First⁸⁾(Primero el hogar) : 노숙자 회복 과정에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7) <https://pladebarris.barcelona/es>

8) <https://ajuntament.barcelona.cat/dretssocials/es/innovacion-social/primero-elhogar-housing-first>

- 노숙자의 자립 능력 회복 프로젝트로, 기존의 모델(자립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최종단계에서 주거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노숙자의 자립 능력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거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 2015년 첫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배제된 노숙자들에게 50개의 주택을 영구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
- 주택은 기본적으로 1인, 혹은 예외적으로 2인의 거주를 기준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그곳에 거주하게 될 노숙자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방문을 최소 1주일에 한 번 이상 허용해야 함.
 - 시범 프로젝트는 2015-2018, 3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향후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 노숙자를 위해 마련된 정식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ATRI(Agrupaciones Tácticas de Repoblación Inclusiva)⁹⁾

- 공공 주택을 위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웃 주민들의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변형을 통해 공공주택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 ATRI(포괄적 인구재분배를 위한 전술적 집합)는 실험적 정책으로, 바르셀로나의 공공주택단지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탐구하고자 함.
- 기존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설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공간을 변형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경제적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수많은 작은 공공 주택의 제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빈곤층 대상의 에너지 상담소 운영¹⁰⁾

- 에너지 관련 사용요금을 내기 어려워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주고, 해결 방법을 찾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상담소’를 구역 별로 운영.
- 현황 : 바르셀로나 도시를 구성하는 총 10개 구역에 각 구역별 1군데씩, 총 10군데의 에너지 상담소를 운영

9) <https://atri.city/es>, <https://ajuntament.barcelona.cat/dretssocials/es/innovacion-social/atri>

10) <http://ajuntament.barcelona.cat/lafabricadelsol/es/noticia/los-puntos-de-asesoramiento-energético-amplían-servicios>, <https://habitatge.barcelona/es/servicios-ayudas/derechos-energetic>

■ 노인빈곤문제(주택의 인구 고령화 문제)

□ Pensium¹¹⁾ : 고령자 소유의 집을 임대하고 그 비용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해결

○ 10년까지 보장된 정기적 지원으로, 주택 임대를 기초로, 신청인 및 가족의 주택 소유권을 보장

- 임대료를 통한 수입은 보통 신청인의 주거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며, Pensium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를 두 배까지 올릴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에는 주택 임대 이전에 주택에 대한 리노베이션과 전문가의 임대 관리가 포함됨.
- Pensium 프로그램은 주택 임대료에 들어간 지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임대 관리를 계속 할 것이며, 모든 채무를 임대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신청 가족은 언제든지 프로그램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주택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가족 소득으로 이어짐
- ‘Pensium’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통하여 의존 등급 2단계 혹은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돌봄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 해당 주택이 바르셀로나 시내에 위치한 경우, 바르셀로나 시의회의 임대 주택 거래소에 신청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현황) 신청자의 초기 지불 비용은 1,925 유로이며, 공식 문서의 공증 및 기타 비용도 지불.

- 임대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첫 달 임대 수익과 매달 임대료의 5%를 지불.
- 배당된 신용 대출은 초기 3년동안 연간 5.7%의 금리 (3년 마다 재검토 가능)로 받게 될 것이며, 조기 취소의 경우 상각된 금액의 1%의 수수료가 적용됨.
- 공식 임대료 측정 및 등록 비용은 ‘Pensium’이 지불함.

다. 부정수급 관련

■ 부정수급 관련¹²⁾

11) <https://pensium.es/>,

<https://ajuntament.barcelona.cat/dretssocials/es/innovacion-social/pack-vivienda-personas-mayores>)

12) 국립사회보험청(Instituto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 IMSS)의 Rafael Larana Cobo와의 인터뷰

□ 기여식 연금의 부정수급 문제의 정도

- 절차 등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다고 보고 있음.
- 수혜자가 사망했는데 밝히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서, 출생/혼인/사망신고 담당하는 기관과 지급이 기관이 연계하고 있음
 - 문제는 해외 거주하는 연금 수혜자이다. 주로 유럽내 거주자들의 경우. 해외 거주 연금 수급자는 매년 거주지 정부의 양식을 통해서 보고해야 함.
- 한 달에 한 번씩 중복 수급자를 적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부정수급 적발시 확인조사(방문조사) 여부

- 직접 나가지는 않고,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이 가면 ITSS에 알리면 거기서 조사를 나가거나,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특수 경찰 부서 SISS(Sección de Investigación de la Seguridad Social, 사회보험 기망 수사부)에 의뢰.
- 사회보험 기망 수사부 (Sección de Investigación de la Seguridad Social, SISS)
 - 사회보장 범죄관련 전담 수사 조직으로, 중앙 사법 경찰청 (Comisaría General de Policía Judicial) 산하의 경제 및 재정 범죄단 (Brigada de Delincuencia Económica y Fiscal de la UDEF Central)에 속함
 - 1977년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관련 기관과 경찰청 내 이민담당 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회보장 관련 다양한 불법 범죄 행위를 조사

□ 중복 급여 여부

- 과거,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발생했지만, 카탈루냐에 비기여식 연금제도 생긴 후에는 전산연계가 되어 있어서 중복 수급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비기여식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치주별 연금을 다른 데서 받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거주 관련 부정 수급

- 기여식/비기여식 통틀어서, 거주 관련 확인이 안 되어서 부정수급이 있는데. 기여식의 경우 최소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신고랑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탐지가 쉽지 않지만 일 년에 한 번씩 거주확인을 함.

□ EU의 다른 국가들과 자료 공유 및 협조

- 유럽차원에서 기관간의 교류 등은 많지만, 사회보장급여를 관리하는 기관들끼리 전산이 연계되거나 관련 자료를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스페인과 가장 정보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독일이지만, 서로 공유하는 정보는 개인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기간과 세금 납부여부 등의 자료인데, 읽기전용(열람만 가능) 자료임.

□ 부정수급 관리 관련

- 주별로 관리소가 나뉘져 있고, 연금만 관리하는 관할부서가 있음.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최소연금(소득 기준)의 재정년도가 바뀌면 소득 변경 시에 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년 그 전 해 자료를 국세청 (hacienda)에서 받아서 국립사회보험청에서 검토하여 소득 기준 초과한 사람은 지급받은 것을 환불할 것을 요청함.
-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자료는 생성하고 있지 않으나 요청 시 집계할 수 있음.

라. 카탈루냐 주정부 노동가족부(Departamento de Trabajo, Asuntos Sociales y Familias)의 사각지대 관리 현황

□ 비기여식 연금 관리 세부사항

- 카탈루냐 주정부는 비기여식 연금(공공부조성 급여)을 관리하고 있음.
 - 비기여식 연금(고령자, 장애인)은 주정부(Comunidades Autónomas)가 노인과 사회 서비스 기구(Instituto de Mayores y Servicios Sociales, Imserso)로부터 위임받아 관리
- 비기여식 연금의 신청을 매월 받으며 현황 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음
 - 신청은 주정부 청사 및 보건소, 사회복지사무소 등에서 받고 있는데, 주정부는 카탈루냐에 여러 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 급여신청자가 주거지 근처에 있는 주정부 사무실에서 할 수 도 있음(이렇게 취합된 신청서는 주정부에서 검토 및 검증)
-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음.
-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방문 연부
 -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음. 급여 신청자를 심사할 권한 없음

- 신청이 접수되면, 각 단계별로 항목별 해당 관리 기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함.
- 급여를 신청했지만 자격요건이 부합되지 않아 급여가 거절된 경우, 공문을 보내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음.

○ 매년 7월에 전년도 분 세금신고(5~6월)를 통한 재무정보가 주정부로 전달됨

- 재무정보가 오면 (약 5만8천명의 카탈루냐 비기여식 연금 수혜자) 검토해서, 최초 신청 시 파일 상의 항목들 (전체 자격요건) 다시 검토해서 관리함
- 수급 탈락이나 금액 차등 등 결론 나면 부정수급으로 되서 (전년도 수령분) 환불 처리 등 절차에 들어감.

○ 신청 후 실제 수령까지 소요 기간

- 법적으로는 신청에서 결정까지 3개월 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더 많은 시간이 걸려왔음. 하지만, 최근에는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음.
- 신청자 대비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이 시간 소요의 원인이며,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외주를 통해 디지털화, 공문 프린트 및 우편 발송 등을 맡겨 업무 효율화를 제고하고 있음.
- Imserso에서 주정부까지의 처리과정은 전산화가 이뤄졌으며, 지급처리는 Imserso 담당자가 아니라 주정부에서 처리.

○ 사회보장급여는 자치주별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여 Imserso에 보내는 파일만 공통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정부에서 부정수급 관리도 하고 있으며, 시민이 인터넷 등으로 부정수급 신고할 수 있는 특정 웹사이트는 없지만 주정부로 관련 사항을 제보할 수 있음.

□ 비기여식 연금 사각지대 관련

○ 비기여식 연금 제도에 대한 특별한 홍보 활동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대부분이 잘 알고 있거나 관련 내용을 보건소, 기본 사회서비스사무소(servicios sociales básicos) 등 관공서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음.

○ 고령이나 장애가 심한 경우 기본 사회서비스사무소, 보건소, CAP(Centro de Atención Primaria)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발굴하는 경우도 있음(신청은 기본적으로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

- 비기여식 연금 지급 기준에 살짝 미달하여 수급을 못 받는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권리성 급여의 개념이 아닌 보조금(subsidiary) 개념의 급여가 존재함.
 - 이러한 사각지대(차상위)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비기여식 연금보다는 기준이 좀 더 완화된 보완적 급여인 ‘renta garantizada de ciudadanía(minimum income benefit)’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대상은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임).
- 비기여식 연금을 받는데 연금수령액이 최저 소득 기준선 미만 경우, 카탈루냐 주에서만 지급하는 일종의 보충적 연금인 (또는 보충 급여인) ‘complemento’가 있음. 일반 기여식 연금의 경우도 이를 보완하는 보충적 연금이 있음.

마. 바르셀로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B-MINCOME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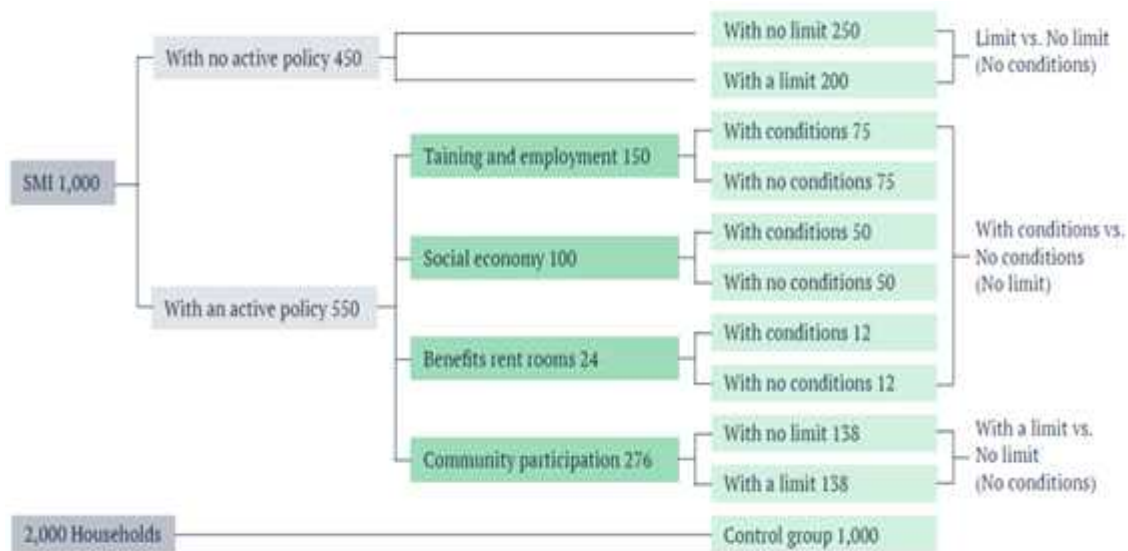
- B-MINCOME : 바르셀로나의 사회적 박탈이 심각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소득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 정책을 결합하여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프로젝트
 - 재원 : 유럽 연합의 UIA(Urban Innovative Actions) cities 및 바르셀로나 시의회
 - 목표 : 바르셀로나의 Eix Besòs와 같은 낙후지역에서 최저소득보장과 적극적 사회 및 노동 시장 통합 정책을 결합한 정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측면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의 영향 평가를 수행
 - 참여 기관 : 바르셀로나 시의회 사회적 권리 담당부서, Young Foundation, Novact (국제 비폭력 행동 연구소), Ivalua(카탈로니아 공공 정책 연구소), IGOP-UAB (정부 및 공공 정책 연구소) 및 카탈루냐 폴리테크닉 대학 등
 - 예산 : 1천 7백만 유로(UIA 5백만 유로, 시의회 12백만 유로)
 - 기간 : 24개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 참가자 : Eix Besòs 에 살고 있는 1,000가구의 취약가정
- B-mincome 프로젝트가 바르셀로나에서 시행된 배경
 - 남유럽 경제위기 이전에도 바르셀로나의 불평등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불평등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불평등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광객의 영향(에어 비앤비 및 관광객의 숙박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

- 1992년 올림픽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어 저소득 가구들이 변두리고 밀려나가 기 사직했음. 또한 주택거품의 꺼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B-Mincome의 급여 설계

- B-Mincome의 급여는 기본적 욕구(basic needs)에 대한 급여와 주거욕구(housing needs)에 대한 급여로 구성됨
- 기본적 욕구(basic needs)에 대한 급여 : 첫 번째 성인 가구원에 대해 월 402.6 유로를 지급하며, 추가 가구원에 대해 월 148 유로지급
- 주거욕구(housing needs)에 대한 급여 : 첫 번째 성인가구원에 대해 월 260유로를 지급하며, 두 번째 가구원에 대해 월 110유로가 지급되며, 3번째 가구원부터는 40유로씩 지급
- 이러한 급여는 고용촉진 직업훈련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참여촉진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급여 한도 부여 및 조건부 지급 여부를 조합하여 다양한 세부 경우 별로 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됨

- B-Mincome 실험 설계 구조



- 해당 프로젝트의 주된 관심 대상은 근로가능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노동 공급 촉진을 위한 우선 순위 : 대부분 이미 은퇴한 노연인구는 제외됨.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3개월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프로그램 구조에 따라 고용 가능성이 매우 중요

□ 바르셀로나의 시민통화(REC)

- 이 프로젝트를 위해 처음 설계된 가상 화폐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역경제의 회복은 지역 상점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므로 가상화폐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자영업자들도 이러한 조치에 만족하고 있음. 현재 프로젝트 이후 가상화폐 적용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임

■ 스페인 공적연금 제도 관련

-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재분배 능력(2013년 사회보장개혁 이후의 추세, 개혁의 방향성 등)
 - 기본적으로 공적 연금 제도가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 기초소득보장 측면의 비기여성 급여, 세금 등이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 나은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의 경우 기초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향하였으나 현재에는 기여를 강조하는 사회보장급여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음
- 스페인 연금 제도의 주요 관심사(재정의 지속가능성, 소득의 적정성, 노동 공급, 포괄성 등)
 - 스페인에서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최우선 관심사로 볼 수 있음. 연금 개혁을 실시했지만 개혁이 원래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연금수준의 적절성도 주요 관심사임
- 인구 통계 학적 변화와 연금 제도의 방향성
 - 스페인 베이비 붐 세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은퇴 할 때 스페인의 현재 연금제도 하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은퇴 연령을 늦추고(65 세 이상 67세 이하) 연금액을 줄이고 필요한 근로기간 (37년 이상~40년 미만)을 늘림으로써 부담을 줄이려는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이 개혁이 원래 일정에 맞추어 이뤄질지는 불확실함.
- 비기여 급여의 역할과 현황
 - 비기여 연금은 거시 경제 관점에서 주요 관심사는 아니지만 정치 상황(여당, 지방 정부)에 영향을 미침.
 - 비기여 급여의 수급자는 해당 급여가 처음 도입 시보다 급여지급 선정기준이 엄격해져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